"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 수고했습니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금 9·은 10·동 14개 획득
패러글라이딩 종합 2위… 육상 필드·보디빌딩 3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정상개최된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선전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33개(금 9·은 10·동 14)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첫 메달은 그라운드골프에서 나왔다. 76세 이하 남자부 개인전에 출전한 장원식이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육상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수확됐다. 금 4, 은 3, 동 9개 등 모두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필드부문에서는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보디빌딩에서는 남자 19세 이하부 홍진영, 남자 35세 이하부 송기진이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 25세 이하부 김도우, 남자 61세 이상부 조귀현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보디빌딩은 종합 3위에 올랐다.

패러글라이딩 일반부 연습조종사-64세 이하부의 최현철과 일반부 조종사-64세 이하부의 문기창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요트에서는 남자 청년부 윈드서핑 혼합오픈에서 김정훈이 금메달을, 김민재가 은메달, 강동우가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남자 청년부 윈드서핑 펀&포뮬러 양근혁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산악 51~55세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56~60세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구종목에서도 포켓부 단체전에서 금빛 스트로크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학기공 일반부단체전과 축구 일반부 단체전, 체조 어르신부 생활댄스체조는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송승천 제주도체육회장은 "민선 2기 들어서고 처음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돌아온 선수단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국의 동호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제주도선수단이 차기 개최지인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입장하고 있다.

봄바람 탄 롯데, KIA·삼성과 6연전

프로야구전망대… 이달부턴 두 번째 맞대결

두꺼운 팬층을 자랑하는 전통의 인기 구단 세 팀이 연승 신바람으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 첫 주에 차례로 격돌한다.

무려 13년 만에 8연승을 재현하고 11년 만에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선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 주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와 6연전을 치른다.

롯데가 봄에만 반짝하는 '봄데'에 그칠지, 올해엔 기세를 중반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갈지를 가늠할 첫 시험 무대가 바로 이번 6연전이다.

롯데는 지난달 20일 KIA를 5-3으로 물리친 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원정으로 치른 시즌 첫 '낙동강 더비' 3연전을 쓸어 담았다. 이어 지난주 한화 이글스, 키움 히어로즈를 각각 2승 무패로 따돌려 8연승을 구가했다. 시즌 14승 8패를 올린 롯데는 SSG 랜더스를 승차 없이 간발의 승률로 제쳐 선두로 뛰쳐나갔다.

롯데의 기세도 무섭지만, KIA와 삼성의 사기도 하늘을 찌른다.

두 팀은 나란히 5연승 신바람을 내고 4월을 마무리했다.

KIA는 제2의 홈으로 부르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5년 10개월 만에 3연전을 싹쓸이했다.

삼성은 5경기 연속 한 점 차 승리라는 진기록을 쓰고 조직력을 매섭게 키웠다.

KIA는 롯데를 2.5 경기 차로 쫓는 공동 5위, 삼성은 KIA에 0.5 경기 뒤진 7위다.

롯데는 선발진의 양축인 댄 스트레일리와 박세웅이 아직 시즌 첫 승리를 거두지못했는데도 불펜의 힘으로 승수를 쌓았다.

KIA는 타선의 핵심인 나성범과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시즌 첫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삼성도 마무리 오승환이 흔들린 와중에 트레이드로 김태훈을 영입해 뒷문을 강화하고 위기를 재빨리 봉합했다.

프로 10개 구단은 9개 팀과 한 번씩 탐색전을 벌였고, 5월부터는 시즌 두 번째로 맞붙는다.

KIA는 부산에서 1승 2패로 롯데에 밀린 빚을 이번에 안방에서 설욕하려 한다.

롯데 역시 대구에서 삼성에 당한 판정패(1승 2패)를 주말 어린이날 홈 3연전에서 갚아주려고 벼른다.

세 팀의 기세 싸움은 초반 순위 경쟁과 흥행을 좌우할 요소여서 큰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EPL 개인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1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22-2023 EPL 34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들을 독려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골을 성공시키며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호골을 기록,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김수연, 양궁종별선수권 은메달

여중부 30M 경기 353점

김수연(사진·퍼니스포츠양궁클럽)이 제57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수연은 지난달 27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30M 경기에서 353점을 쏘며 1위와 2점 차이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중등부 30M, 40M, 50M, 60M 네 경기를 합산한 종합점수에서는 1318점을 기록하며 여자 중등부 출전 187명 중 21위로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올 시즌 첫 대회로 전국에서 1389명의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했다.

김수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궁종목의 학교운동부가 없어 대회 출전이나 장비 지원은 사비나 제주도양궁협회의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클럽활동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의 훈련을 통해 제주에 메달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양궁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의 첫 양궁종목 메달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고 전망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삼다수 엄도현 세계선수권 출전

김수빈 청두 하계U대회 참가

제주삼다수 체조단의 엄도현은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김수빈은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엄도현은 지난달 29~3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대표 선발전을 통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엄도현을 비롯 이윤서(경북도청), 여서정(제천시청), 신솔이(강원도체육회), 이다영(한국체대), 이은주(강원도체육회) 등 현재 여자 기계체조 주축 모두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엄도현, 김수빈(사진 왼쪽부터).

김수빈은 제31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월 28일~8월 8일) 출전권을 따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재) 11:55 안녕 우리말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금이야 옥이야(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하늘의 인연(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11:30 크리켓팡2(재) 11:45 팬티히어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뽕뽕뽕뽕 부부맨 8:35 한글용사 아이야 9:0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9:20 인간과 바다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EBS 평생학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19:50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5:00 영상앨범 산(재) 15:30 팔도밥상 스페셜 15:50 만담 다큐 호수인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25 개는 훌륭하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구르곰 구르닭(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UHD 특선 다큐 13: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3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4:00 화첩기행 15:00 역전다방 16:00 혼저옵서예 16:40 맛있는 제주 만들기(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TV 동물농장(재)	**KCTV** 8:00 여왕의 레시피 9:30 제주 공공미술 올레길 10:30 낭만읍 고향리 12:00 탐나는 보이스 13:10 트래블 메이커 15:10 on 피플 in 제주 17:00 KCTV 뉴스 18:00 여왕의 레시피 18:30 탐나는 보이스 19:00 KCTV 뉴스7 20:00 제주 공공미술 올레길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금이야 옥이야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여자 20: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1: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23:0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8:0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9:05 하늘의 인연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PD수첩 22: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23:30 명쾌한 주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꽃선비 열애사 23: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샘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보라. 48년 능률이 오르고 이익이 따르니 자신감을 갖고 뛰어라. 60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72년 동업 제의 시 정중한 거절도 필요하며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길. 84년 직장, 취업의 소식을 접하고 시원함이 생긴다.

37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49년 결혼 또는 집안간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중매가 성사된다. 61년 본인이나 자녀 중 경사가 있고 축하 받을 일이 있다. 73년 하루가 순탄하고 활동이 분주한 날. 85년 명예를 회복하려고 고민하게 된다.

38년 잘 알지 못하면 참견하는 것을 삼가라. 망신수가 보인다. 50년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는 중요하니 경청함이 좋다. 62년 약속에 어긋나고 추진업무에 문제가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74년 유흥 낭비하는 데 지출이 생긴다. 86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39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건이 있다. 51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면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3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5년 답답하면 휴식과 안정을. 재충전이 필요하다. 87년 재물이나 이성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40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창업 가능. 52년 인품이 높을수록 언어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언행은 그 사람의 품성이다. 64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76년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라. 88년 학생은 봉사활동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

41년 귀인의 도움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에 능률이 오른다. 53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음주할 시 절제가 필요하다. 65년 생각이 많거나 안절부절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바르게 한다. 77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력이 많아진다. 문안 안부 전화. 89년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날. 지출이 따른다.

42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54년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날. 구설수나 안전사고 주의. 66년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해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8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90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며 분주하다.

43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성사가 있다. 금전이나 매매건이 성사된다. 55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한다. 신규사업 희망 있다. 67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79년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1년 일이 있으면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44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에 신경, 조심해야. 56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68년 예전 같지가 않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해소된다. 80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92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다소 해소된다.

45년 나를 혹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니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라. 57년 문서변화나 하던 일을 변화를 주려고 한다. 69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 미혼자는 부모와 마찰이 온다. 81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이 증가한다. 93년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46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8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정리가 우선 시 돼야 한다. 70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82년 애정에 희소식이 오기도 하고 선약도 생긴다. 94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해야 한다.

47년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애정문제가 다가온다. 59년 방해자가 생기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71년 경쟁자가 많아 나를 바쁘게 하는 형국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 83년 미혼자는 소개,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하다. 95년 작은 이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